

# 大學新聞의 進路

金 容 材

(大田大 英語英文學科)

大學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를 쌓아 가고, 외부적 통제나 억제의 힘이 나타날 때 해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모두어 감으로써 大學新聞의 힘은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때 어두운 시대적 상황의 현실에서도 大學新聞의 進路는 가슴 아픈 사연들로만 점철되지는 않을 것이다.

## 1. 머리말

유럽의 다오 토나스大學에서 1769년에 발행된 「더 가젯트(The Gazette)」를 세계 최초의 대학신문이라고 볼 때 대학신문의 역사는 2세기가 훨씬 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1946년에 창간된 「京城大學新聞」이 그 효시라고 보아 이제 겨우 40년이라는 역사를 지니게 된 셈이다.

외국의 大學新聞에 비해 너무나 짧은 연륜을 쌓아 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짧은 기간에 우리의 대학신문은 社會發展이나 大學發展과 더불어 質·量 면에서 괄목할 만한 成長을 해 온 셈이다. 특히 大學新聞 자체에 담겨지는 內容이나 性格의 변화는 다양하고 두드러진 것으로서 그것은 끊임없이 격변하는 社會相의 일면이라는 점도 없지 않은 것이다. 더우기 최근에 외서는, 일부 대학신문이 소위 ‘急進左傾學生들의 左傾 이데올로기를 전파시킬 憂慮가 있는 논단을 게재하는 등 問題性 있는 新聞을 제작’하고 있다

는 사실을 전제하고 大學新聞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大學文化 暢達의 旗手임을 자처하며 發展과 成長의 역사를 거듭해 온 대학신문이 大學言論 스스로의 사명을 다하여 品格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결코 저버릴 수 없는 일이다.

本稿는 “大學言論의 位相”이라는 主題下에 개최된 1986학년도 전국 대학신문 주간교수협의회 하계 세미나 내용을 중심으로 大學新聞의 進路를 다시 생각해 보려는 데 主眼점을 둔 것이다.

## 2. 大學新聞의 位相

大學의 本質이 무엇이고 대학에 있어서의 大學新聞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는 새삼스럽고 부질없는 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은 영원한 아카데미즘의 광장이어야 하고 대학신문은 그러한 대학의 문화 창달을 위

해서 중추적 支柱 역할을 해야 한다는 本質論的立場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大學이 격변하는 社會의 諸樣相을 外面하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제해 놓고 보던 대학이 社會의 現實的 問題를 어떻게 수용하고, 여과하고, 새롭게 승화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를 끌어안게 될 것이다. 전통적 개념의 교수(teaching)와 연구(research) 목적 이외에 社會奉仕라는 또 하나의 大學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학이 社會問題의 과제와 無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大學新聞이 수용할 수 있는 社會問題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어떤 제약이나 통제의 조건 속에 흡수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大學新聞이 겪고 있는 진통은 오히려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발행 중지’, ‘배포 금지’, ‘잡은 주간 경질’, ‘학생기자 처벌’ 등 갖가지 형태로 그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그 실례로 들 수 있다.

급기야 文敎部에서는 ① 大學新聞 性格의 재정립, ② 大學新聞의 운영체제 개선, ③ 大學新聞 기자의 자질 向上, ④ 新聞기사 내용의 건실화 등을 요구하는 입장이 되었다. 앞에서 말한 전국 大學新聞 주간교수협의회 '86 하계 세미나에서 文敎部 長官은 致辭를 통해 大學新聞은,

첫째, 학원과 社會의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 주기 바란다.

둘째, 학원에 누적된 갖가지 폐습을 없애고 새로운 전통을 세워 나가는 학풍 쇄신을 위해 견인차적 역할을 맡아 주기 바란다.

셋째, 경영과 조직 등 운영체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모를지기 생동하는 대학 문화의 원천이 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  
는 내용을 주지함으로써 文敎部의 대학신문에 대한 요구 사항을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大學新聞을 ‘복종형’, ‘협조형’, ‘비판형’ 등으로 그 성격을 분리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大學新聞은 오히려 비판형의 신문이 그 位相을 드러내면서 ‘大學新聞의 자유와 독립’을 호소하고, 또는 투쟁의 意味로까지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大學新聞이 완전 통제, 완전 제약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반성할 점이 없는 것이 또한 아니라고 볼 때 大學新聞의 位相을 재검토할 여지는 충분히 남는 것이다.

첫째, 大學新聞은 일반적 개념으로의 ‘아카데미즘’에 특색을 두고 진리 탐구의 목적 및 그 교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현실적 의미의 ‘저널리즘’이 공존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적 활동이나 학습 정보 제공 활동을 전자의 代表的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주위 환경과 社會問題의 상호관계에 기반을 둔 活動을 후자의 요소로 볼 수 있다.

둘째, 제작자, 제작 목적, 독자 및 담겨지는 내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간신문과 대학신문은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일간신문이 대중문화의 계승 발전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보는 신문’으로 제작된다면, 大學新聞은 학문적 연구 및 대학문화를 표현하여 동일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읽는 신문’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셋째, 大學新聞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의 전제하에 발행인 또는 주간교수의 소신이 계고되어야 하고 대학의 이념에 관한 것이든 社會問題에 관한 것이든 논리적 근거를 둔 비판활동이 상승되어야 한다. 어떤 부수적 간섭 없이 대학 당국, 교수, 학생 등 삼위일체적 산물로서 대학 社會의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네째, 대학 스스로의, 또는 社會의 기준의 공정성을 잃지 않은 기사나 원고가 취급되어야 하고 대학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어떤 협의체도 사실상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社會와의 연계성 및 文化的 표현의 기획물 등이 확대 신장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다섯째, 홍보적 기능의 기관지적 성격만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大學 자체내의 교육적 여건이나 환경감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對話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充分히 해야 할 것이다.

### 3. 대학신문의 自由와 責任

비록 언론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民主的 概念의 社會生活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責任을 수

반하지 않은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한다. 대학신문이 어떤 책임을 외면한 완전한 자유領域의 大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世上에 존재하는 모든 言論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상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社會機構로서의 言論은 政治·經濟·社會·文化的인 다른 체계들과의 밀접한 연관관계에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관관계의 內面에는 어쩔 수 없는 '통제' 또는 '억제'의 수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신문도 같은 立場일 수밖에 없다. 政治·經濟·社會·文化的인 外部 체계의 연관으로부터 大學 또는 新聞 자체의 구조적 체계에 이르기까지 상호 또는 자율체계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大學新聞에 통제나 억제의 수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정당성의 근원적 논리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근원적 논리를 순수하게 인정한다 해도 言論의 자유를 통제나 억제 수단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의 民主主義 國家에서 언론의 자유는 法的·制度的의 보장을 받아 왔고 自由主義 체계로서의 뿌리를 내려 왔지만 '社會的 責任이 제기되는 체계로의 변모' 양상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국가가 얼마만큼 이 자유의 영역을 확대하고, 통제나 억제 수단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그 상위개념으로 자유를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참여의 가치를 높이 든 학생들의 과격한 시위행동과, 당국의 과잉저지와 처벌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大學新聞이 저널리즘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눈여겨 보며 이에 대한 대학인 스스로의 견해도 피리의 현상임을 발견할 수 있다.

편집인의 자율과 독립을 외치며 무제한의 자유를 주장하는 학생측과 통제적 성격의 기능을 발휘하는 관계당국이나 학교와 중간적 입장에서 진퇴유곡의 고민을 토로하며 주간교수들은 드디어 학생신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게 되었다(전국 대학신문 주간교수협의회 '86 하계 세미나). 즉 현행 大學新聞을 學校新聞으로 하

고, 발행인으로부터 편집인, 또는 주간, 편집국장 등 간부진용과 기자들을 모두 학생으로 구성한 학생신문을 허용해도 좋다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大學新聞이 Daily로 발전한 것이 있고, 프랑스의 대학신문이 학교신문과 학생신문으로 분리해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 大學에서의 學生新聞의 제시는 조건 없이 允원한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立場이 될 것이다. 그 가능성과 성패의 여부, 부가적 책임 문제는 대학 자체에 일임할 일이다. 현실적 外面이나 부정정보다는 가능한 대학에서부터 연구·검토해 볼 만한 일일 것이다. 학생 입장을 고수하는 단순한 이상론이나 현실적 여건하에서의 불가능한 內面認識을 체념으로만 남겨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체제하에서의 大學新聞의 自由와 責任 문제는 결국 타율적인 규제가 작용되지 않을 때 이상적인 論議의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물론 자율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무절제한 자유가 책임을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방관하는 상태가 된다면 타율의 규제는 더욱 정당성의 가치를 드높일 것이다.

#### 4. 대학신문의 運營體制

대학신문의 운영체제는 大學內에서의 일반적 보편화의 체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大學마다의 어떤 특수성에 입각한 체제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체제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결과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체제 문제는 사실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言論의 重大性이나 自律性 및 責任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현재 文公部의 大學新聞 등록서류에는 人的 構成員의 체계로서 發行人—編輯人—印刷人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신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책임을 들을 경우가 있다면 對外的으로 이들 등록된 사람 중의 어느 하나가 또는 전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스스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학은 아직 없기 때문에 대학신문의

인쇄인은 모두가 大學外의 인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쇄인을 제외한 大學新聞의 운영체제 중 上部組織을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 ① 발행인—주간—편집국장(또는 편집장)
- ② 발행인 겸 편집인—주간—편집국장
- ③ 발행인—편집인 겸 주간—편집국장
- ④ 발행인—편집인—주간—편집국장

위의 형태를 놓고 볼 때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발행인 또는 발행인 겸 편집인은 그 대학의 총(학)장으로 되어 있다. 신문제작의 실제적인 모든 문제는 주간이 종판한다고 볼 때 총(학)장이 발행인 겸 편집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총(학)장은 발행인으로서 신문을 대표하면 될 것이다.

편집인 겸 주간, 또는 편집인과 주간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편집인이 하는 일과 주간이 하는 일의 구분이 확연하지 못할 것이다. 업무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편집인=주간이다. 특히 학생처장이 편집인으로 되어 있고, 주간이 학생부처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나, 학생처장 겸 주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대학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겠으나 大學新聞 자체의 입장으로 보면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라 볼 수 있다. 발행인 밑에서 실제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주간은 大學新聞의 독립성 및 자율성의 지주가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타 補職의 겸직도 피해야 하는 위치인 것이다.

다음, 편집국장과 편집장은 語義上의 意味區分이 명확하지 못하다. 大學新聞의 業務部署가 '局'으로까지 승격된 것이 아니라면 編輯長의 명칭이 무난하겠으나 출판 관계의 일반적 관례대로 編輯局長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큰 흠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체제는 ①의 경우와 같은 발행인—주간—편집국장의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주간은 편집인으로서의 자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편될 것이다. 이러한 체제로 大學新聞의 독립·자율적 의미가 강화된다면 主幹의 위치 문제(학처장 회의, 학무회의,

교무회의 등으로 불리워지는 학내 최고 회의 참여 문제나 보직 서열 문제 등)는 大學에 따라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編輯局長은 학생으로 命하거나, 조교, 사무직, 대학원생 등으로 命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대학신문 편집 경험이 있는 조교급 이상의 전임직원을 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主幹教授의 입장이 本職이 아닌 補職이며 學生記者가 學業을 제쳐 놓고 신문 제작의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직원으로서의 편집국장이나 전임기자 등을 둔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히 요구받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의 各部署에 관한 機構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음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副主幹이나, 面擔當 指導教授 등을 둘 수 있겠으며 논설, 광고, 편집 등의 기능이나 제정 문제, 학생 문제 발생 요인에 대한 사전지도나 유사시의 대책 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또한 바람직할 것이다. 논설위원회, 편집지도위원회, 신문방송위원회 등 어떤 명칭이 되었건간에, 대학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로 두면 될 것이다.

大學新聞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상승시킬 수 있는 基本的인 運營체제에 유연성 있는 협조체제를 구성·운영하자는 것이다.

## 5. 맺음말

이상 大學新聞의 位相, 自由와 責任, 運營體制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大學新聞의 현실 및 진로를 탐색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大學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를 쌓아 가고, 의부적 등제나 역제의 힘이 나타날 때 해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모두어 감으로써 大學新聞의 힘은 강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계속적인 문제 제기의 현실에서도 大學新聞의 進路는 가슴 아픈 사연들만 무성하게 접철되지는 않을 것이다. \*